

## 유망산업-유망학과- 유망직업의 허상

주위 학부모들로부터 가끔 받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유망 산업-유망 학과-유망 직업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꼭 짚어 주는 답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속 시원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유망 산업은 시대를 따라 변천해 왔다. 1960년대 면방 산업과 합판 산업, 1970년대 봉제·신발·가발 산업, 1980년대의 전자·자전거 산업, 1990년대의 반도체·자동차 산업, 2000년대의 휴대폰·인터넷 산업 등 산업계의 유망 분야는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이제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권고할 유망 산업은 어느 분야인가?

대학의 유망 학과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인 1960년대에는 섬유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유망 학과였다. 당시에 국내 10대 재벌 중에 4대 재벌이 면방 회사, 화학섬유 회사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발표되면서 화학 공정설계, 기계항공, 재료공학과가 떠올랐고,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면서 토목, 구조공학이,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인테리어 설계와 건축공학이 득세했다. 1990년대에는 전자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전자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와 반도체 분야의 인기가 상승했다. 요즘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의대, 한의대, 치의대, 법대가 가장 지원률이 높은 학과들이다. 어디가 유망 학과인가? 현재 유망한 학과는 자녀가 졸업할 때쯤에는 유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전쟁을 겪으며 피란 행렬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군인, 경찰, 의사가 될 것을 권했다. 피란 중에 그들이 몹시 부러웠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정책 공무원, 국책 사업, 기술 도입 관련 직업 등이 인기가 높은 직종이었다. 1970년대 경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기업과 종합무역회사가 전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98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컨설팅 등이 인기 직종이었다. 1990년대는 펀드 매니저, 벤처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절이다. 2000년대에는 개인 활동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분야가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별로 유망 산업, 유망 학과, 유망 직종의 변천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망 분야는 머지않아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분야로 대체될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을 때쯤에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망 직종은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었거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별 볼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유망 산업, 유망 학과, 유망 직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 어떤 것이 유망한가?

첫째, 현재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이내에 사양길을 걸을 것이다. 그래서 'W이론'에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한 것이다.

둘째, 현재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은 유망하지 않다. 현재 유망 산업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초기의 위험 부담을 안고, 낯선 분야를 개척했던 역군들이다. 즉, 그 분야에 투신한 지 20~30년이 지나서 비로소 유망 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변할 것은 현재 유망한 산업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현재 생소한 분야 중에서 미래 유망 산업이 나온다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곳이 유망하다는 말인가? 이제 정답을 말하겠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이다. 10년 단위로 빠르게 변하는 분야보다 평생 마음이 끌릴 분야가 유망한 것 아닌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교수에게 자꾸 물어야 별다른 대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물어야 한다. 자녀가 즉시 대답을 못 하면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것저것 여러 분야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에 몸담은 친지와 면담을 주선하면서 자녀가 일하고 싶은 분야를 직접 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정답이 생각난다. 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위해 유망 산업, 유망 학과, 유망 직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자녀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 명문 대학의 필요-충분 조건

국제 사회를 선도하는 선진국들은 그 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명문 대학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MIT와 스탠퍼드, 영국의 옥스브리지(Oxford,

Cambridge), 프랑스의 소르본과 그랑제콜은 과거의 업적과 미래의 포부로 그 국가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대학들이다.

그렇다면 명문 대학이란 어떤 대학을 말하는가? 우리나라에도 명문 대학이 있는가? 명문 대학은 다음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필요 조건부터 설명하겠다.

첫째, 새로운 학문과 이론을 창출해야 한다.

둘째, 학문의 중심지로서 관련 학문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셋째, 관련 학문이 전 세계 대학의 교과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 세계 지도자와 전문가를 다수 배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명문 대학이 있는가? 대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더 알아 볼 일이 있다. 명문 대학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충분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입학생 수에 비하여 졸업생 숫자가 훨씬 적어야 한다.

둘째,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야 한다.

셋째, 학부모가 자녀의 입학울 말리는 경우가 생겨야 한다.

넷째, 임용을 통보받은 교수가 망설여야 한다.

다섯째, 세계 각지에서 기부금이 줄을 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명문 대학은 입학생에 비해 졸업생의 숫자가 두드러지게 적다. 학업이 어려워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야 한다. 학부모는 왜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말릴 것인가? 다니려면 보통 고생이 아닐 텐데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느냐고 다시 생각할 것을 부탁하기 때문이다. 신입 교수도 임용장을 받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망설여야 한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평생을 책에 파묻혀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가 들 것이기 때문이다. 왜 세계 각지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는가? 전 세계에 그 대학이 공헌한 과거 업적이 대단하고, 앞으로도 공헌할 내용이 많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명문 대학의 필요-충분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가 있는가? 있다고 하면 애국심, 애교심의 발로 일 것이다. 일본의 동경대와 경도대, 중국의 북경대와 칭화대는 명문 대학인가? 그렇다고 주장하려면 그전에 먼저 몇 잔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